

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August 6, 2020 Vol. 728

2020 센서스 가정 방문 조사 시작...온라인으로 간편하게

11일부터 가정 방문 조사 시작, 최대 6번까지 방문
 체류신분 관계없어 설문내용 비밀 보장
 온라인, 전화로 간편하게 마칠 수 있어

향후 10년간 지역 경제 개발 혜택을 결정지을 2020년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가 오는 9월 30일로 마감되는 가운데, 아직 센서스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11일(화)부터 방문 조사가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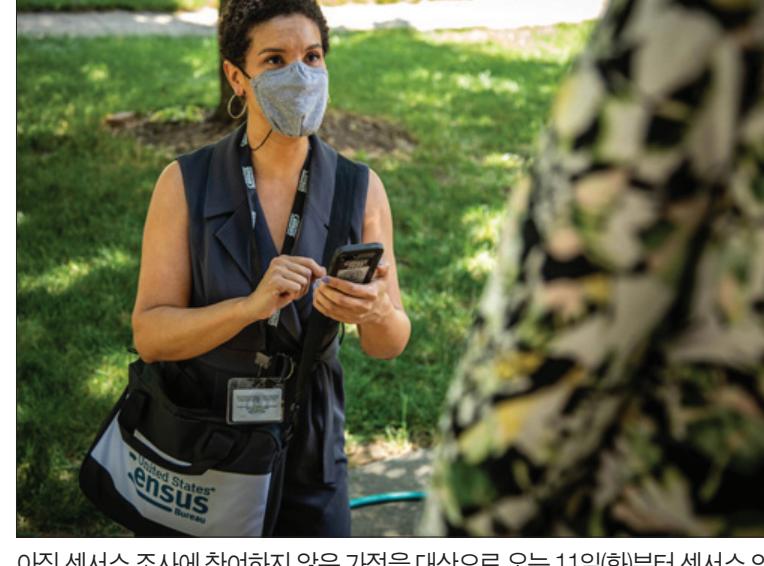
센서스 인구 조사원은 가정 방문 시 마스크 및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모든 설문을 진행하게 된다. 조사 소요 시간은 10분 내외로 비교적 간단하게 이뤄진다. 조사원 방문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조사원 방문시 부재중일 경우 최대 6번까지 방문이 이뤄지게 된다.

센서스 인구 조사원의 가정 방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으로 센

서스 인구조사 설문을 마칠 수 있다. 웹사이트 2020CENSUS.GOV 또는 2020CENSUS.GOV/ko에서 간편하게 설문지를 작성하면 된다. 지금 까지 센서스 설문을 작성한 사람들의 80%가 인터넷 작성으로 이뤄질 만큼 온라인을 활용하면 설문 작성 을 쉽게 마칠 수 있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남가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센서스 응답률은 7월 28일 기준으로 64%, 특히 코리아타운의 응답률은 50%를 밟아, 아직 센서스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작성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은 인구조사국 파트너십 전문가는 “10년마다 진행되는 센서스 인구조사는 연방 의원 선출 및 지역



아직 센서스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11일(화)부터 센서스 인구 조사원들의 방문 조사가 시작된다.

선거구에 영향을 미치고, 인구조사 데이터는 의료, 일자리, 학교, 소방, 공공시설, 도로 및 사업 등 지역사회에 경제 개발과 공공 보건 및 안전과 비상 대책 등을 위한 연방 자금 지원 근거로 사용된다”며 한인들

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또 “훗날 코로나 사태로 무너진 지역경제를 재건하는데 필요 한 정부 지원금 유치는 물론이며 앞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을 때 지역사회에 공급될 물량도 인구조

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만약 실제 거주민보다 인구가 낮은 기록으로 집계된다면 자칫 코로나 백신 부족 사태로 또 한 차례 혼란을 겪어야 할 수도 있다”고 인구 조사 참여를 강조했다.

2020 인구센서스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거주민은 누구나 온라인, 우편, 전화 등으로 인구조사에 참여 가능하다. 센서스국은 센서스 조사지 안에 범적인 체류 신분에 대한 질문 항목은 없으며, 철저한 보안으로 지역 경찰 등 어떤 정부기관에도 제공되거나 공유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보장 번호(SSN), 현금 또는 기부금, 정당 지원이나 은행 또는 신용카드 번호를 절대 묻지 않는다.

아직 센서스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한인들은 웹사이트(2020CENSUS.GOV 또는 2020CENSUS.GOV/ko) 또는 영어가 불편한 경우 전화(844)392-2020를 통해 한국어로 참여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우간다 목회자, 극단주의 무슬림 집단 구타로 숨져

우간다 동부 지역에서 이슬람교도들에게 폭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지역 목회자(25)와 교회 신자(22)가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익사된 채 발견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 모닝스타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담임한 피터 카쿨라가(Peter Kyakulaga) 목사와 성도인 툴레 블라바야(Tuule Mumbya)는 칼리로구 루고니올라 마을의 한 호수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으며, 사건은 6월 22일 밤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희생된 카쿨라 목사 친척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사망하기 전 하루

전날 이슬람 강경파들은 목사와 교회 성도를 찾아가 해당 지역에서 전도를 중단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중 한 명은 “우리는 당신의 임무가 낚시가 아닌 기독교 모임을 가진 다음 무슬림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임을 알아챘다”며 “우리는 당신이 한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이것이 당신에게 보내는 우리의 마지막 경고”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인근 마을의 지역 의회의장이자 우간다 교회의 담임이던 데이빗 납요마(David Nabyoma)목사는 사건 당시, 자신의 아들을 포함해 기독교

인 여려 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보고받았다. 그는 배 네 척을 빌려 호수를 찾아갔고 의사한 두 사람을 발견했다.

우간다는 가톨릭, 성공회를 비롯한 기독교인이 인구의 80%가 넘는 반면, 무슬림은 12%에 불과할 정도로 기독교가 훨씬 우세한 국가이다. 그러나 우간다 기독교인들이 최근 들어 다수의 무슬림이 사는 몇몇 지역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오픈도어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이 소말리아, 우간다, 니제르에서는 코로나 대유행을 기독교인들을 비난할

기회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에는 우간다 동부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수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자 목회자 6명을 구속시키는 등 수백명의 무슬림들이 적대감을 표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같은 해에는 우간다의 행정 중심지인 시론코에서 70여 명의 목회자와 30여 개의 교회가 기독교를 수호하는 연석 회담을 열었다.

기독교인 박해 소식을 다루는 모닝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한 지역에서는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에 대한 보복 테러가 발생했다.

개종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



무슬림들의 공격에 머리와 턱을 부상당한 17세 크리스천(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오픈도어

은 고베라 바시르(27)는 친구와 함께 교회를 다니는 중에 끼거운 식용유로 공격을 받아 몸의 절반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당시 매체는 이것은 이슬람의 명예 살인이나 공격에의 한 피해임을 보도했다.

김유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침,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프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리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0-0112,(323)735-3180

APPLY or TRANSFER NOW

A man and a woman are talking in an office setting. In the background, another man is working at a desk. On the wall, there is a sign that reads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캘리포니아 존 맥아더 목사, 주정부 명령에도 예배 지속 결정

“교회는 진리 수호하고 거짓과 속임 반대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Grace Community Church) 존 맥아더(John MacArthur) 목사가 교회를 폐쇄하라는 주정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보도했다.

맥아더 목사는 앞서 제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 58개 카운티 중 30개 이상을 폐쇄한다는 명령을 발표한 지 2주 만에,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예배를 재개하고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

28일 폭스뉴스 ‘터커 칼슨 투나잇’(Tucker Carlson Tonight)에 출연한 맥아더 목사는 진행자 칼슨에게 “우리는 원조 시위자들(protestors)이었다. 500년 전 종교개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다.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

과 속임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는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권리다. 미국과 정부가 예배를 방해할 수 없다. 우리는 이 권리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맥아더 목사는 또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사망 위험 감소가 교회를 재개방한 핵심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4000만 인구 중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8500명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0.002%다. 캘리포니아에서 여러분이 생존할 확률은 99.99%다. 그렇다면 왜 주 전체를 봉쇄하는가? 특별히 사람들이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시기에 교회를 봉쇄하는 것은, 교회 생활 속에 존재하는 사회의 가장 긴밀



존 맥아더 목사.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한 관계성을 막는 것과 같다. 교회에는 다세대가 존재한다. 우리는 21주간 수천 명의 자녀들, 수천명의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청년들을 위해 어떤 사역도 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최근 교회가 폐쇄된 가운데 목회를 해 온 그는 “우리는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열지 못했다. 난 병원에 갈 수도 없다. 병원에서 죽어가는 이들과 전화로만 대화할 수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다 ‘마침내’ 빈 성전에서 설교를 하게 됐으나, 교회를 폐쇄 한 지 3주 만에 교인들이 천천히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그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기 시

작했고 지난 주말에는 약 3,000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성도들은 즐거워하면서 서로 포옹하고 기뻐 했다. 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노래했다. 예배의 현실을 매우 잘 이해했다.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됐다”고 전했다.

맥아더 목사는 최근 성도들에게 쓴 선언문에서 “정부는 특별히 국가나 공동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시민의 평화와 안녕을 감시하고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면서 “하나님께서는 시민들의 통치자에게 교회의 교리나 신앙생활, 정책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셨다. 성경적 틀은 각 기관의 권한을 특정한 관할권으로 제한한다. 교회는 개별 가정의 일에 관여하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 할 권리가 없으며, 학부모는 공무원을 피해가면서 민원을 관리할 권리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동욱 기자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 제21회 학위 수여식 개최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 제21회 학위 수여식

“사랑의 종 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라”

무엇보다 사랑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회자가 돼라”고 강조했다.

학위 수여에 이어 전명구 이사장이 축사, 미주 자치연회 은희곤 감독이 격려사를 전했으며 졸업생 대표로 김 다이애나 씨가 답사했다.

이날 학위를 받은 6명의 졸업생들은 현장 목회로 나가거나 상위 진학을 통해 미주 연회 안에서 활동을 이어 가게 된다.

한편 이번에 ABHE로부터 목회학 박사 학위 코스 승인을 얻은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는 한국과 미국, 전 세계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한다. 모든 코스를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을 수 있다. 김동욱 기자

“교회여 일어나라” 2020 JAMA 중보기도 컨퍼런스

8월 3일(월)부터 15일(토)까지
온라인 새벽대각성집회 개최

예배가 중단됨으로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 해이해졌고, 교회 예배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긴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상황”이라며 “교회가 당면한 영적 위

기상황 속에서 이번 새벽 대각성 집회를 통해 새벽 기도가 살아나고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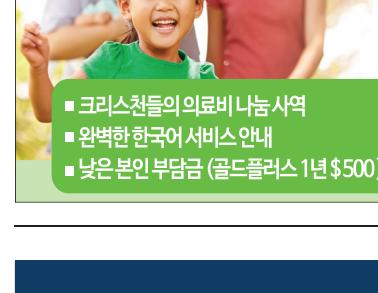
강 목사는 또 “오늘의 교회는 오순절 이후의 예루살렘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힘 있게 선포되고 성도들이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됨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JAMA는 매일 미국 중부시간 새벽 3시에 유튜브에 설교를 업로드할 예정이며 유튜브에서 “2020 JAMA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검색하거나 JAMA 웹사이트 ipc.jama-global.c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강순영 목사 310-995-3936

김동욱 기자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
Since 1996

기독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장 213.318.0020 | www.cmmlogos.org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비영리단체등록

■특허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포괄적 차별 금지법’ 미주 한인 교회 및 기독교 단체도 반대 표명

“동성애 보호법 혹은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으로 악용될 수 있어”

본국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남가주를 중심으로 미주 한인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미주 한인 교회와 한인 기독교 단체들은 “프랑스, 영국, 캐나다 그리고 미국 등 유럽과 북미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으로 교회와 가정, 학교는 물론 전 사회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의도와 달리 동성애 보호법 혹은,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의당 발의안에 대한 입법 활동을 점검하면서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마(JAMA) 대표이며 청교도 400주년 기념 사업회 준비위원장인 강순영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성경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법”이라며 “심각한 문제를 직면한 한국 교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는 미주기독교총연합회(회장 민승기목사),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 회장 송정명목사, 진유철목사), 청교도 400주년 기념사업회(대표회장 한기홍목사), 자마(대표 강순영 목사) 등이 공동으로 준비하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유해성을 알리고, 미주 지역 4000여



좌부터 청교도 400주년 기념 사업회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 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 송정명 목사, 미기총 총무 샘신 목사, 성시화운동본부 상임 본부장 이성우 목사가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반대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교회와 150만 성도들에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임을 호소할 계획이다.

준비위는 미주에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반대 활동에 동참하거나 관련 자료를 원할 경우 강태광 목사(청교도 400주년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323-578-7933) 또는 이성우

목사(성시화 운동 상임본부장 213-675-6493)에게 문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욱 기자

GMU “비영리 단체 및 비즈니스 선교” 회계와 세무보고 강의 개설

8월 8일(토) 오전 10시
ZOOM 온라인 공개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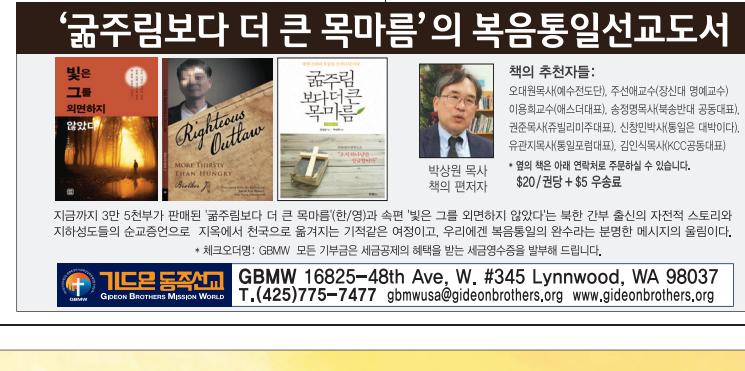


그레이스미션대학 제임스 구 교수

뮤니티를 위해서 비영리 단체 설립, 운영 및 회계에 관련한 무료 강의를 주관했다.

GMU는 오는 8월 8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churchhomepage.org>) 사이트에서 줌을 통해 공개 강의를 실시한다. 공개 강의는 비영리단체 회계와 세무보고 무료 강의이며 누구나 참여해 질문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김동욱 기자
학교 및 입학 관련 문의 714-525-0088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위안하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저작으로, 저작권은 김진석 목사(한국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회장)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은 김진석 목사(한국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회장)에게 있습니다.

* 저작권자: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nbrothers.org www.gideonnbrothers.org

“교회가 당면한 법적 문제, 미국 법 이해로 효과적 대응할 수 있어”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한인 동문회와 태평양 법률협회
“제2차 법과 교회” 웨비나 개최



“제2차 법과 교회” 웨비나 세미나를 진행하는 태평양법률협회 한국 디렉터 주성철 목사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한인 동문회와 태평양 법률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가 주최한 “제2차 법과 교회” 웨비나가 지난 20일과 27일 양일간 ZOOM을 통해 진행됐다.

미국 동부와 서부, 한국 등지의 목회자들이 참여한 이번 웨비나는 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발생하는 종교 자유와 둘러싼 다양한 법률적 논란에 대한 교회의 법적 대응과 절차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웨비나는 ▷변화하는 문화에 사역을 배치하는 방법 ▷공공장소와 공립학교에서의 권리주장 ▷국가 위기 상황법과 교회 사역 등을 주제로 주성철 목사가 강의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속에서 대면하는 법적인 대응과 교회 사역의 전망이란 주제로 태평양 법률협회 콜로라도 지부장 매튜 박 변호사가 강의했다.

매튜 박 변호사는 교회의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 활성화 방안에 대

주성철 목사는 “한인교회 목회자와 리더십들이 미국 법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 교회가 직면한 문제와 공공장소 전도, 교회 내 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태평양법률협회는 교회와 목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해법과 대처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평양 법률협회는 1997년 설립이 되어 종교의 자유, 부모의 권리, 그리고 인권옹호를 향변하는 비영리단체로 교회나 사립학교 안에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제재 받는 일, 종교적인 기준 때문에 교회나 비즈니스가 공격을 받는 일, 교사와 학생이 공공장소에서 믿음 때문에 제제 받는 사안 등을 다루며, 특별히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의 권리 및 종교 자유에 대해서 무상으로 돋고 있다.

김동욱 기자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미주 한인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은 한국 국회 일부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추진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이 호소문을 통하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법의 유해성을 깨닫고 또 미주 4,000여 교회와 150만 성도들은

이 법으로 조국의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를 잃는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을 담아 우리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반대 호소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우리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고급 호소문

첫째 이 법은 비성경적인 법안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반기독교적인 법안이다.

둘째,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반민주적인 법안이다.

셋째, 이 법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정과 교육의 기회를 말살하는 법안이다.

넷째, 이 법은 성경적, 윤리적 교육을 행하는 부모, 교사, 목회자들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나쁜 법안이다.

다섯째, 이 법과 유사한 법이 실행되고 있는 서구 여러 나라에서 이미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어 뒤늦게 후회하는 실패한 법안이다.

2020. 8. 1.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68

“2020 선교 캠프와 선교사 파송식을 바라보면서”

지난 7월 28일(화)부터 31일(금)까지 필자가 섭기는 InterCP International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선교캠프”가 로스앤젤레스 새누리교회를 중심으로 북미 전 지역에서 열렸다. 팬데믹 환경이 선교캠프의 모습을 변화시켰다.

매년 2천 명 이상의 다민족 선교 동역자들이 전세대 모두 한자리에 참여하여 치러지는 선교대집회이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19의 확진으로 인해 미주에서도 교회의 모든 집회들과 모임들을 폐하는 조치로 인해 선교캠프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부흥을 열망하는 세대들은 창의적 방법을 동원하여 선교캠프를 은혜중에 진행한 것이다.

엘에이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지역은 10명 이상의 집회를 할 수 없어 새누리 교회당의 큰 무대에 찬양팀과 강사만 섰다. 그들의 무대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상황을 라이브 영상으로 진행하면서 미주 전체의 각 지역의 지부에서는 ZOOM 영상을 통해 48개 지역 지부들 중심으로 동영상 선교 캠프를 3박 4일간 진행했다. 강사로 초빙된 각 지역 선교사들이 강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각 지부들은 영상으로 강력한 도전을 받으며 시간과 마음을 같이 하였다.

동영상 화면으로는 200여 개의 화상이었는데 한 영상마다 어느 지역은 10명 안팎 어느 지역은 조금 더 적은 수로 서로 모여 동영상 선교캠프를 함께 하였다. 필자도 지부의 가족들과 함께 하며 이 강력한 성령집회에 한 마음이 되었다.

참가인원 족히 1500명을 넘는 선교캠프의 마지막 날은 선교사 파송식이었다. 평생 선교사로 결단한 가정의 장기선교 파송 3가정, 1년 및 2년의 SM(대학생 선교사)과장년 선교사 파송과 그리고 HSM(고등학생 선교사)까지 합하여 무려 200명이 선교 파송을 받았다. 동영상으로 그들이 파송 받는 지역과 민족들 그리고 그들의 명단이 오를 때마다 비록 영상으로 하는 파송 장면이었지만 각 지역의 참가자들은 모두가 다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었다.

개인적인 필자의 이야기 하나를 하자면 이번에 HSM팀의 인도를 맡은 간사가 필자의 딸이었다. 20여 명의 유스팀들을 인도하여 지난주 터키로 입성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지에서 사역할 물품들과 준비물들 그리고 팀원들을 독려하고 훈련하면서 합숙하는 모습을 보며 딸에게 “선교에 미친 것 같다”고 했다. 딸이 대답했다. “아빠, 올해는 더 미친 것 같아요. 참여하는 학생들이 이번에는 더 열심히 해요. 나도 놀라워요.”

그렇게 각 팀마다 지난 수개월간 선교를 위해 컨퍼런스 기도회와 줌 동영상 예배 등을 통해 매일 같이 기도로 준비를 했다. 각 팀마다 마스크를 2중, 3중으로 착용하고 거리와 공원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소셜 디스턴스를 한 상태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 그렇게 지난 상반기를 보냈던 팀들이 다민족 청년들을 중심으로 대거 200명이 올여름 열방으로 향하는 것이다.

팬데믹 상황으로 미국 한국 등 대부분 교회와 선교단체들의 선교사역의 문이 닫혔으나 이 선교 회의 사역자들은 “우리가 주저앉으면 열방의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함”을 절실히 느끼기에 과거 어느 해보다도 어렵고 힘든 길이 될 것임을 저들은 알며 나가는 것이다. 혹시나 이런 위험한 때의 사역이 자칫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

해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면 우려와 염려들이 크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단 한시도 포기하거나 미룰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임을 깨닫는 지체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나간다. 필자도 이 글을 써 보내고 곧바로 열방으로 향할 예정이다.

1800년대 말 우리나라 조선 땅에 들어와 전 국토를 걸으며 선교를 감당하다가 풍토병과 콜레라 전염병 등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던 존 헤론, 루비 캔드리 등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이 오늘 우리들을 이룬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디딤돌로 살고 싶은 것이 선교지를 향하는 우리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다.

♡ ♡ ♡ 섭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기고

차별 금지법 꼭 막아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자녀와 그 다음 세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말입니다. 20여 년 전 늦깎이 유학생으로 신학교 세미나 룸과 도서관을 오갈 때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과목이 영성신학 세미나였습니다. 크리스천 영성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발제와 질의응답, 그리고 교수님의 정리로 이어지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영화가 주는 영적 삶에 주는 영향력을 발제했습니다.

발제자도 토론자들도 영화의 영향력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영화는 영화다.’ ‘영화의 영역을 인정하자!’ ‘영화와 상관없이 교회 교육이나 교회문화를 잘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교수님이 중간에 말을 끊고 “여러분은 영화의 영향력을 잘 모릅니다.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10년만 지나면 지금 영화에 등장하는 동성애 문제가 사회에 만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루는 문제들이 여러분 자녀와 그 다음 세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성도와 해외 한인 교포 사회에서 우려하는 차별 금지법도 머잖은 장래에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 그리고 자자손손이 고통을 받게 될 법입니다. 20수년 전 교수님 경고를 다시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문제가 우리들 자녀와 그 다음 세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의 차별 금지법과 같은 법을 이미 제정한 프랑스는 온 사회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차별을 금한다는 명목으로 더 독한 차별을 가능하는 사회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캐나다, 덴마크 그리고 스웨덴에서 바른 교육을 지향하는 교사, 목사 그리고 부모들이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체포되고 투옥되곤 합니다.

얼마 전 극단적 선택을 했던 서울 시장 박원순씨의 공로도 과실도 있을 것입니다. 박시장이 남긴 업적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박원순 시장의 노선과 정책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그의 편향적 성향은 동의는 물론 관용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런 박시장이 지지했던 차별 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입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차별 금지법은 소수와 약자의 차별을 막는다면 만드는 역 차별법입니다. 차별 금지법은 차별이 느껴지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동성애의 부작용을 교육하거나 설교하여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느끼게 하면 위법입니다. 성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가르치면 불법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차별 금지법을 따르면 동성애 반대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서울 시내에 공공연히 펼쳐지는 퀴어(Queer)축제 같은 혐오집회를 반대할 수도 없습니다. 나아가 미성년자 자녀의 성전환 수술이나 동성연애에 대해 부모나 목회자가 반대의견을 밀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권면과 가르침을 막는 법입니다.

차별 금지법은 고 박원순 시장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는 서울시장에 당선되자마자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했고,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강력히 희망했었습니다. 박시장이

2014년에 추진했던 ‘서울시민인권 현장’은 미니 차별금지법이었는데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박 시장은 2016년 또 다시 ‘서울특별시 자치현장 조례’의 제정을 추진했으나, 역시 기독교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는 집요하게 차별 금지법을 추진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기독교계를 포함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었던 동성애자들의 퀴어(queer)축제를 서울광장에서 열게 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열려진 행사는 음란성과 혐오감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민은 대낮에 알몸 행진이나 음란 공연을 봐야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 폭력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은 우리들이 퀴어 축제 반대 운동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반대의사 표현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 금지법을 막아야 합니다. 차별 금지법과 유사한 법들을 아무 고민 없이 도입했던 나라들은 ‘사회가 망가지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가정, 학교 그리고 교회가 큰 고통을 당합니다. 부모, 교사 그리고 목회자의 양육권과 교육권의 심각한 침해가 있습니다.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후손들이 큰 고통을 당할 것이 자명합니다. 교회들이 무너짐도 보듯 뻔합니다.

이런 차별 금지법 제정을 한국 교회가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녹록치 않습니다. 코로나가 큰 장애 물입니다. 현재 코로나 시대에는 집회가 어렵습니다. 또 진영논리가 문제입니다. 좌우로 분열된 조국 사회는 교회 분열도 가져왔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이 차별 금지법이 진영의 틀에 갇혀 있어서 진보 진영에서는 찬성하고, 보수 진영에서는 반대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영을 넘어 입장을 초월해서 다 함께 차별 금지법을 막아야 합니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Miracle! You can make it
World Share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애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사랑과 성금!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성금을 시작합니다.
필드쉐어는 세계 구호 NGO 단체입니다.
필드쉐어는 UN과 함께합니다.
필드쉐어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장애인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강순영 목사의 부흥을 사모하며

(13) 아주사 Street 부흥운동

Apostolic Faith Mission
Azusa Street, Los Angeles, 1907

기독교 역사상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 부흥운동 중의 하나가 아주사 Street 부흥운동이다. 아주사 Street 부흥운동은 1906년 Los Angeles에서 흑인 목사 윌리엄 시무어에 의해 시작되었다. 말씀 보다는 신유, 방언 등 체험을 강조하는 은사에 초점을 둔 오순절 운동의 모체가 되었다. 이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어 현재 오순절 산양을 가진 기독교 신자가 5억명 이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인 복음 확산을 위해 기적을 동반한 강력한 부흥운동을 준비하셨던 것이다.

윌리엄 세무어의 멘토였던 찰스 파함 목사

파함은 감리교의 목사로 1900년에 캔자스 토페카에 벤엘성경대학을 열고 성경교육과 기도, 예배를 강조했다. 그가 3일간 집회인도를 위한 여행을 떠나면서 40명의 신학생들에게 '성령세례의 성경적 증거'를 연구하도록 과제로 주었는데 학생들 모두 '방언'이 성령세례의 증거라고 답을 내렸다. 그후 학생들과 파함도 직접 방언을 경험함으로 현대 오순절운동이 시작되게 된다. 교회사에 가끔 방언이 나타났지만 방언은 비울서신에 나타난 은사를 중심으로 여겼었다. 그러나 토페카의 방언 현상은 성령세례의 외적현상과 증거로 이해되었다.

그 학교는 '은혜의 3가지 사역'으로 구원, 성화 그리고 방언이 수반된 성령세례를 성경적 가르침의 핵심으로 삼고 가르쳤다. 그는 1905년에 휴스턴에 성경학교를 열었고 윌리엄 시무어는 그곳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당시에 인종차별이 심해 흑인이라는 이유로 복도에서 창 넘어로 수업을 들었다고 한다.

윌리엄 조셉 세무어(William Joseph Seymour, 1870-1922)

그는 루지아나에서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앙을 지켰다. 어린 시절 심한 천연두를 앓아 한쪽 눈을 실명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요한 웨슬리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다면, 무디는

무식이었고 시무어는 노예의 아들이었다. 성결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성령세례를 간절히 사모하여 과함목사가 인도하는 집회에 관심을 갖고 과함의 강의에 성실히 참석했다.

LA의 어느 성결교회에 집회 초청을 받고 설교를 했는데 중생, 성화, 신유 그리고 방언이 수반되는 성령세례에 대해서 설교했다. 방언하는 것이 성령세례의 증거라는 내용을 장로들과 담임목사가 거부함으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자 몇 흑인과 함께 LA의 Bonnie Brae St.에 있는 가정집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한다. 곧 백인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소식을 알고 점점 많이 함께 참석하게 된다.

아주사 Street 부흥운동

1904년에 일어난 웨일즈의 부흥의 소식이 미국에도 전해지자 LA에서도 그러한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고, 윌리엄 시무어도 웨일즈에서처럼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부흥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오던 사람이었다.

1906년 4월 9일 성령께서 사도행전에서처럼 시무어가 인도하는 모임에 강하게 임하셨고 시무어와 여러 참가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 은사들이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죄인들이 은혜받고 고꾸라지고, 구원을 간증하면서 수 많은 사람들이 물려왔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려와 집의 애드에서 모이다가 집의 축대가 무너졌고, 모임 장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거리에 쓰러진 사람들로 주변 길들이 마비되자 경찰은 그 집에서 모임을 중단시키고 정상적인 예배당이나 강당으로 옮기라고 했다. 더 넓은 장소를 찾다가 한 때 감리교회로 사용되다가 창고처럼 쓰고 있던 Azusa St.에 있는 건물을 발견 한다. 임대료가 없어서 하나님께 임대료를 위해 기도했는데 시무어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LA 인근 파사데나의 한 아파트로 갔다. 그곳에서는 이미 성령세례를 받은 Carney라는 17세의 자매가 이끄는 성령세례와 부흥을 사모하는 몇 성도들이 LA에 큰 부흥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전에 알지 못했던 시무어 목사를 하나님으로 보내신 사람으로 환영하고 그의 설교를 듣고 한금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임대료에 충분한 돈을 공급해 주신 것이다.

Carney는 시무어 목사를 만난 후 Azusa St. 집회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되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창고 건물을 수리하고 예배 장소로 꾸몄다. 과일 상자 둘을 쌓아 강단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Carney 자매를 통해서도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

외도한 남편과 싸우던 중에 내연녀로부터 한쪽 귀를 물어 뜯겨 붕대로 싸매고 온 부인이 기도를 받고 귀가 자라나기도 했고, 훨체어와 같이 침대에 실려온 수 많은 사람들이 기도 받고 치유되어 겨우 되었다. 그 후 Carney는 훨체어를 타고온 환자들의 전문 치료사처럼 쓰임 받았다.

Azusa St. 교회에서 3년 반 동안 매주 6-8회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전해지고 있다. 당시의 기록 영상을 보면 팔이 잘린 사람의 팔이 시무어가 기도하자 정상으로 자라 나오기도 했고, 공장에서 사고로 손가락들이 모두 잘린 사람이 기도받고 손가락들이 정상으로 자라기도 했다. 가끔 시무어를 통해 "훨체어를 탄 사람이나 간이 침대에 누운 사람 모두가 고침 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모두가 일어나기도 했다.

어느 날 밤에는 교회로 소방차들이 불이 났다고 신고를 받고 달려오기도 했다. 예배 장소 위에 쉐키나 영광(쉐키나 -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불과 구름으로 임함)이 불을 품는 것처럼 15m 이상이나 솟아올라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출동한 것이였다. 집회장 소 안에는 자주 안개같은 것이 임했는데 그 때에는 더 많은 각종 치유들이 일어났다고 한다. 3년 반 동안 쉐키나 영광이 자주 아주사 St. 건물 위와 안에 임했다. 후에 LA 지역에 6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던 마마 카튼이 양각나팔(Shofar)을 불면 쉐키나 영광이 그 장소에 임했다고 한다.

무명의 흑인목사가 인도하는 집회에서 시작된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 아주사 거리 전역을 뒤덮기 시작했다. 죄용서, 성화, 성령세례, 치유를 사모하는 구도자들이 전역에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로스엔젤레스 타임즈와 다른 신문들이 이를 보도함으로 아주사 거리 부흥은 미 전역과 세계로 알려지게 된다. 수개월 안에 시무어가 인도하는 교회인 The Apostolic Faith Mission은 LA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어 모든 인종

들이 어우러진 가운데 매일 3차례씩 말씀, 찬양, 간증, 치유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의 특징 및 영향

1. 지금까지의 부흥운동이 말씀과 회개로 특징되는 영적 성격이었다면 아주사 거리 부흥은 성령의 은사(특히 방언과 치유)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흥운동이었다.

2. 지금까지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들이 에드워즈, 피니, 무디 등 백인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다면, 아주사 거리 부흥은 흑인 목사를 중심으로 일어나 백인, 흑인, 황색인 등 인종의 벽을 넘어 확산되었다. 흑인 목사가 성령의 은사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되면서 인종차별이 많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다.

3. 말씀보다 신유, 방언 등 체험을 강조하는 은사에 초점을 둔 오순절 운동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어 오늘날 5억의 성도들을 가진 오순절 계통 교단들의 모체가 되었다.

4.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의 핵심 교리는 아래 5가지였다. 시무어는 항상 다섯 가지 복음의 핵심을 쉽고 선명하고 단순하게 선포함으로 청중들을 사로 잡았다.

① 예수님이 구속을 통한 죄사함과 구원

②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성화(성결)

③ 성령세례의 증거로서의 방언 은사

④ 하나님의 구속의 일부로서 병고침을 받음

⑤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

5. 아주사 거리 부흥은 체험적 신앙,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깊주린 수 많은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대단한 자극과 생기를 주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큰 확신과 기쁨 뿐 아니라 은사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활발하게 수행하게 했다.

6.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고, 연구하고, 논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 전국과 세계로 부터 부흥 현장으로 몰려들었고 이들 모두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굽복하는 역사가 계속 되었다.

7. 이들에 의해 오순절 부흥운동은 전 미국으로, 카나다로, 전 유럽으로, 남미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세계 전역으로 확산 되었고, 많은 오순절 교회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대형교회들로 성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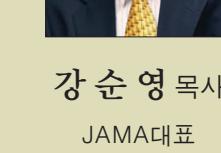
8. 오순절 운동의 약점은 방언, 신유, 투시, 예언을 강조하다 보니 신앙이 주관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고 마음에 오는 강한 감동을 하나님의 계시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런 이들로 인해 무리와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은사운동과 부흥운동이 요청된다.

근래에 LA 인근에서 다시한번 아주사 Street의 부흥을 보내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대규모의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주님 미국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중심으로한 강력하고 건전한 은사를 동반한 부흥운동이 일어나 폭발적인 복음 전파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재림시까지 시들지 않고 타오를 부흥을 보내주소서 아멘.

부흥을 사모하는 작은 종

강순영 목사



강 순 영 목사

JAMA대표

청교도 이주 400주년

준비위원장

2020 미주기독대학박람회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 ABHE 정회원, ATS 종회원

• 기독교장로회(총회장 김종준 목사),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I-20 자발행

• 인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시학 가능

• 목회봉사자 자격 신설

• 입학상담: 조희숙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8,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 info@aeu.edu, aedumaster@gmail.com



미드웨스턴 칠레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대신학회(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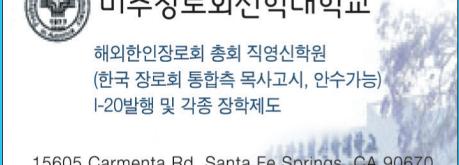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opicana,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목회학박사

신학박사

교육학박사

</

미 기독교인 절반, “성경 읽지만 스스로 이해하기 힘들어”

라이프웨이리서치(LifeWay Research)가 최근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 미국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성경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 줄 수는 있으나, 그 중 절반은 스스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라이프웨이리서치는 ‘익스프로어 더 바이블(Explore the Bible)’과 제휴한 연구에서 개신교 교인의 57%가 성경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자신감은 있지만,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스콧 매코넬(Scott McConnell) 라이프웨이리서치 상무는 “성도들은 성경을 진리이자 충실향 도덕 기준으로 옹호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은 그들이 읽으면서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익스플로어 더 바이블’의 리더인 드웨인 맥크래리(Dwayne McCrary)는 “개인이 성경을 읽고 공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을 통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다른 이들이 필요하다”며 “함께 공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통찰력을 얻어 학습을 보다 진전되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여론 조사에서 교인 10명 중 9명은 성경의 한 구절이 자신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동의했고 7%는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응답자 5명 중 4명은 성경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타인을 도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경의 진실성을 대한 의구심(81%)’, ‘성경이 가르치는 윤리를 수용하는 데에 어려움(82%)’, ‘성경 구절에 대한 혼란(81%)’ 등의 측면에서 남을 돋는데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맥코넬 상무는 이에 대해 “교인들이 성경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은 스스로 깨우친 깨우친 것보다 배운 것에서 더 많이 나온다”고 설명하며 주로 교회를 가



©pixabay

장 자주 다니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성경 이해를 돋는데 자신감을 가졌다며 덧붙였다.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은 교인들은 성경의 이해에 있어서 다른 성

결하는 데에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또 20%는 ‘성경 구절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이웃을 도울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성도 10명 중 9명(93%)은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탐구하는 것을 즐긴다’고 답했으며, 5%는 동의하지 않았다.

‘성경 구절을 탐구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한 응답자는 ‘침례교인(97%)’이나 ‘초교파 교인(95%)’이 ‘성경복귀운동 교인(83%)’ 혹은 ‘루터교인(76%)’보다 더 많았다.

아울러, 대부분 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묵상의 요소는 ‘성경 구절의 본래의 맥락에 대한 이해’와 ‘그 구절을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이었다.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은 성경이 쓰여진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96%)고 답했으며, 성경의 의미와 원리를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93%)고 답했다.

김유진 기자

“거대 SNS 기업들, 기독교인 검열 의심 사례 증가”…새 플랫폼 주목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미국 기독교인들 및 보수주의자들을 검열한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SNS대안 플랫폼인 ‘USA.Life’가 주목받고 있다고 2일 크리스천 포스트가 소개했다.

2019년 초, 목회자 겸 실리콘밸리 기술 전문가인 스티븐 앤드류(Steven Andrew)는 USA.Life를 개발해 ‘기독교 보수, 자유를 검열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대한 해답’으로서 플랫폼을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앤드류는 새 플랫폼에 대해 “페이스북이 내 계정에서만 월 500만 명을 차단했다”며 “수정현법 제1조가 보장하는 권리인 언론의 자유가 방해받지 않는 소셜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USA.Life를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페이스북과 같은 친숙한 방식으로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내고, 그룹에 가입하며, 다른 사용자들과 친구를 맺는 방식이다. 또 ‘좋아요’와 같은 기능으로 앞에 십자가가 있는 ‘아멘’ 버튼으로 디자인해 두었다.

또한 그는 구글의 대체 검색엔진으로 ‘1776 Free’를 개발해 “구글이나 기타 플랫폼 등이 기독교인, 보수인, 애국적 발언, 가족의 가치, 자유를 검열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지난 29일 미 의회는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온라인 청문회를 열



미국내 거대 SNS 플랫폼들이 기독교인과 보수주의자들이 포스트를 검열한다는 의심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새로운 기독교적 SNS 플랫폼인 USA.Life가 이목을 끌고 있다. ©USA.Life

어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4대 IT 기업 CEO들을 출석 시켰다. 의원들은 이날 각 회사들의 검열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CEO들은 협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가장 옹호하는 기업 중 하나로 차별화 해왔다”며 “우리는 진실의 중재자가 되고 싶지 않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아니라, 우리가 있게 될 나쁜 입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계정을 일시 제한한 사례 등이 있고, 페이스북은 기독교인, 낙태반대 단체들을 비롯한 여러 사용자들에 대한 검열 의심으로 인해 비판 받고 있다.

CP는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이 기독교 단체의 게시물-그리스도를 따르기 전, 자신을 성소수자(LGBT)라 여겼던 이들의 사연-이

검열 당한 소식을 지난 주 보도했다.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동성애나 양성애자를 이성애자로 전환하도록 치료하는 ‘전환요법’(conversion therapy)을 장려한 것에 대해 ‘커뮤니티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게시물을 일체 차단했으며 애플은 관련 앱 자체를 삭제했다.

미국 기독교인들과 보수주의자들이 대체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폭

넓게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미 의원들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 등 기존의 IT 온라인 업체들을 규제하고 검열에 대한 책임을 문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6월 19일 미국 공화당 조지 휴리 연방 상원의원은 ‘인터넷 검열 법에 대한 지원 중단’이란 새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적 입장을 지켜야 할 소셜 미디어 업체들이 진실하게 행동하지 않거나 검열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통신법 230조에 보장된 면책특권을 박탈 당한다.

면책 특권은 온라인 사업자들이 제3자가 올린 유해물 또는 명예훼손의 게시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항은 1996년 제정되어 미국의 인터넷 사업이 확장되는데는 큰 역할을 했으나 거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어떠한 경제나 제재도 받지 않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어 왔다.

USA.Life에는 미국 내 10만 명이 넘는 사용자들과 교회, 기업체들이 가입해 있으며 2020년 말까지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안 SNS 앱인 ‘Parler’는 지금까지 현재까지 27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www.marhlaw.com

辯護 (변호)

實力 (실력)

精誠 (정성)

責任 (책임)

信賴 (신뢰)

미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자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로움을 갖춘 것이 미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가장 큰 성과는 의뢰인의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때든지 미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청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미변호사그룹의 밑거름이 되어야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민법

낯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분해 대처하는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흥행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미국인 90%, “코로나 바이러스, 건강보다 경제적으로 더 위협적”



지난 6월26일 백악관에서 조시 워싱턴 초상화 아래에서 미국 노동자들과의 서약 화면이 송출되고 있다. ©백악관 제공/Shealah Craighead

최근 여론 조사에서 대다수 미국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중 보건보다 경제에 끼치는 위협을 더 크게 우려한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사회문화 연구소인 퍼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 성인 응답자의 86%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국 경제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인식하며, 이보다 적은 67%가 공중 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도 공화당원 84%, 민주당원 88%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국 경제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본다고 응답했다. 바이러스가 미국인의 건강에 큰 위협인가를 묻는 설문에 민주당원은 85%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원은 46%만이 동의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바이러스가 공중위생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치적 견해 차이는 있으나, 경제적 위협에 대해서는 모두 동등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미국인 저소득층은 중상위층보다 바이러스가 자신의 건강과 재정에 큰 위협으로 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성인의 55%는 코로나

19가 재정에 큰 위협이라고 답한 데 비해, 중산층은 32%, 상류층은 24%로 나타났다.

CP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시카고 대 부스 경영대학원 금융학과 라흐루란(Raghuram Rajan) 교수와 CNBC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한데 따른 것이다.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지난 라잔은 “대유행이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난 3월에 영업을 중단한 많은 중소기업들은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고비용 저소득 현상으로 인해 다시 문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안과의사였던 랜드 폴(Rand Paul)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폭스뉴스 런던 팟캐스트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봉쇄 조치가 바이러스의 확산을 잠재우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미국 경제에 끼친 악영향은 크다고 말했다.

최근 미 의회예산국(CBO)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타격을 완전히 극복하는데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 규모에서는 10년 간 약 8조 달러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김유진 기자

美 1백여 신양인들, 민주당에 ‘낙태 반대’ 공개 서한



©Pexels/Andreas Wohlfahrt

미국의 신양 지도자들과 신학자들 1백여 명이 민주당에 태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정책을 선택하고 ‘낙태 극단주의’(abortion extremism)와 결별하라고 요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

27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이 서한은 민주당원들의 낙태 반대 운동인 ‘DFLA’(Democrats for Life)에 의해 작성됐으며 서명자는 비민주당원도 포함됐다.

신양 지도자들은 “민주당의 ‘인권, 평등, 공정성에 대한 혁신’은 높이 평가하지만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는 더 많은 정책을 보고 싶다”면서 “남세자 재정으로 낙태를 지원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임신 20주 후 선택적인 낙태를 허용하는 ‘끔찍한 관행’(horrible practice)을 거부한다”면서 “(우리는) 민주당이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용 할 것을 촉구한다. 태아를 위한 법적 보호, 특히 유색인종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태아 관리 개선, 낙태에 대한 대안, 그리고 폭력, 범곤, 인종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종합적인 생명의 문화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신양 지도자들은 “민주당에 당원 뿐만 아니라 낙태 반대 견해를 가진 후보를 공직에 추천하고 더 환영해달라”고 호소하며 “우리는 태어나기 전이든 후이든 어린 이에 대한 불가침의 인간 존엄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유권자의 60%와 76%가 반대한 미국과 해외에서의 남세자 재정 지원 낙태와 같은 ‘낙태 극단주의’를 위한 플랫폼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을 종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따르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 못하는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고 언급한다(잠언 31:8-9; 마태복음 25:45)”면서 “생명은 수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시한다(시편 22:10-11, 갈라디아서 1:15, 누가복음 1:41, 시편 139:13-15, 예레미야 1:5)”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낙태는 무고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며 이는 성경에 위배된다(출애굽기 20:13, 열왕기하 17:17, 신명기 5:17, 요한계시록 22:15, 시편 106: 38, 잠언 6:17)”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교회 및 선교

LA 지역

| | | | |
|---|---|---|---|
| LA 백송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 LA 씨티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일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오후 9:00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 LA 사랑의교회 주일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9:45(내시대예배 오후 9:30) 새벽예배 오후 5:20(월~금) 3부예배(차시대예배) 오전 11:30 대학생부/EM 오후 2:00 수요중기도(미) 오후 7:30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lder.kore) T. (213)386-2233 | LA 세계선교교회 주일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 (월~토) 3407 W. 6th, #412 (6기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 New Church 주일과 양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 Galilee Ministries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기와 Rampart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
|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싸지가 복음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 나성장로교회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9:00 주일 2부예배(본당) 오후 11:00 새벽기도회(본당) 오전 6:00 Youth 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한천영 담임목사 | 나성복음교회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9:00 주일 2부예배(본당)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청년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
|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싸지가 복음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 나성장로교회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9:00 주일 2부예배(본당)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청교동부 유초등부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진유철 담임목사 | 나성제일교회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9:00 주일 2부예배(본당)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청교동부 유초등부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차성구 담임목사 | 나성장로교회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9:00 주일 2부예배(본당)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청교동부 유초등부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정장수 담임목사 |
| 나성제일교회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9:00 주일 2부예배(본당)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청교동부 유초등부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신승호 담임목사 | 나성제일교회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9:00 주일 2부예배(본당)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청교동부 유초등부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이명수 담임목사 | 나성제일교회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9:00 주일 2부예배(본당)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청교동부 유초등부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김경렬 담임목사 | 나성제일교회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9:00 주일 2부예배(본당)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청교동부 유초등부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곽부환 담임목사 |
| 나성제일교회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9:00 주일 2부예배(본당)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청교동부 유초등부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이순환 담임목사 | 나성제일교회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9:00 주일 2부예배(본당)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청교동부 유초등부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강자원 담임목사 | 나성제일교회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9:00 주일 2부예배(본당)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청교동부 유초등부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한마음제자교회 | 나성제일교회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9:00 주일 2부예배(본당)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청교동부 유초등부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정운교 담임목사 |
| 나성제일교회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9:00 주일 2부예배(본당)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청교동부 유초등부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 나성제일교회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9:00 주일 2부예배(본당)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청교동부 유초등부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이희철 담임목사 | 나성제일교회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9:00 주일 2부예배(본당)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청교동부 유초등부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이순환 담임목사 | 나성제일교회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9:00 주일 2부예배(본당)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청교동부 유초등부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한우리장로교회 |
| 나성제일교회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9:00 주일 2부예배(본당)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청교동부 유초등부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고태형 담임목사 | 나성제일교회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9:00 주일 2부예배(본당)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청교동부 유초등부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이희철 담임목사 | 나성제일교회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9:00 주일 2부예배(본당)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청교동부 유초등부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이희철 담임목사 | 나성제일교회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9:00 주일 2부예배(본당)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청교동부 유초등부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이희철 담임목사 |
| 나성제일교회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9:00 주일 2부예배(본당)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청교동부 유초등부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이희철 담임목사 | | | |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후 9:15
3부예배 오후 11:3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후 11:45
수요말씀강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안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랑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후 9:45
3부예배 오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810-3455 / F.(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침대교회 사람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후 6:00(월~토)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 오후 7:30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성경이야기회(마지막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주일 2부 예배 오후 9: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1:00
EM 예배 오전 11:15 (교육관)
Sunday Service
사랑방 예배 오전 8:4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등이오니 내 길에 빛이니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org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 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예배 오후 5:30
유년부 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오후 7:30
EM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후 8:00 (금)
새벽예배 오후 8:00 (금)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금)
유부부 예배 오후 11:00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화로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친마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후 9: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45
주일 5부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학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굽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j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찬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온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남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발리체육
주일 1부 예배 오후 8:00
주일 2부 예배 오후 10: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0
금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후 6:00(토)

MP체육
주일 1부 예배 오후 10:00
주일 2부 예배 오후 10: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0
금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후 6:00(토)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4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후 5:30(화~금) 6:00(토)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F. (818) 549-9199 choonghyun.org

사우스 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EWS 예배 오후 2:00
유증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00
EM 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예배 오후 11:00
토요사역부 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 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EM 예배(EM) 오후 9:45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EM) 오후 11:00
4부예배(EM) 오후 11:00
5부예배(EM) 오후 11:00
6부예배(EM) 오후 11:00
7부예배(EM) 오후 11:00
8부예배(EM) 오후 11:00
9부예배(EM) 오후 11:00
10부예배(EM) 오후 11:00
11부예배(EM) 오후 11:00
12부예배(EM) 오후 11:00
13부예배(EM) 오후 11:00
14부예배(EM) 오후 11:00
15부예배(EM) 오후 11:00
16부예배(EM) 오후 11:00
17부예배(EM) 오후 11:00
18부예배(EM) 오후 11:00
19부예배(EM) 오후 11:00
20부예배(EM) 오후 11:00
21부예배(EM) 오후 11:00
22부예배(EM) 오후 11:00
23부예배(EM) 오후 11:00
24부예배(EM) 오후 11:00
25부예배(EM) 오후 11:00
26부예배(EM) 오후 11:00
27부예배(EM) 오후 11:00
28부예배(EM) 오후 11:00
29부예배(EM) 오후 11:00
30부예배(EM) 오후 11:00
31부예배(EM) 오후 11:00
32부예배(EM) 오후 11:00
33부예배(EM) 오후 11:00
34부예배(EM) 오후 11:00
35부예배(EM) 오후 11:00
36부예배(EM) 오후 11:00
37부예배(EM) 오후 11:00
38부예배(EM) 오후 11:00
39부예배(EM) 오후 11:00
40부예배(EM) 오후 11:00
41부예배(EM) 오후 11:00
42부예배(EM) 오후 11:00
43부예배(EM) 오후 11:00
44부예배(EM) 오후 11:00
45부예배(EM) 오후 11:00
46부예배(EM) 오후 11:00
47부예배(EM) 오후 11:00
48부예배(EM) 오후 11:00
49부예배(EM) 오후 11:00
50부예배(EM) 오후 11:00
51부예배(EM) 오후 11:00
52부예배(EM) 오후 11:00
53부예배(EM) 오후 11:00
54부예배(EM) 오후 11:00
55부예배(EM) 오후 11:00
56부예배(EM) 오후 11:00
57부예배(EM) 오후 11:00
58부예배(EM) 오후 11:00
59부예배(EM) 오후 11:00
60부예배(EM) 오후 11:00
61부예배(EM) 오후 11:00
62부예배(EM) 오후 11:00
63부예배(EM) 오후 11:00
64부예배(EM) 오후 11:00
65부예배(EM) 오후 11:00
66부예배(EM) 오후 11:00
67부예배(EM) 오후 11:00
68부예배(EM) 오후 11:00
69부예배(EM) 오후 11:00
70부예배(EM) 오후 11:00
71부예배(EM) 오후 11:00
72부예배(EM) 오후 11:00
73부예배(EM) 오후 11:00
74부예배(EM) 오후 11:00
75부예배(EM) 오후 11:00
76부예배(EM) 오후 11:00
77부예배(EM) 오후 11:00
78부예배(EM) 오후 11:00
79부예배(EM) 오후 11:00
80부예배(EM) 오후 11:00
81부예배(EM) 오후 11:00
82부예배(EM) 오후 11:00
83부예배(EM) 오후 11:00
84부예배(EM) 오후 11:00
85부예배(EM) 오후 11:00
86부예배(EM) 오후 11:00
87부예배(EM) 오후 11:00
88부예배(EM) 오후 11:00
89부예배(EM) 오후 11:00
90부예배(EM) 오후 11:00
91부예배(EM) 오후 11:00
92부예배(EM) 오후 11:00
93부예배(EM) 오후 11:00
94부예배(EM) 오후 11:00
95부예배(EM) 오후 11:00
96부예배(EM) 오후 11:00
97부예배(EM) 오후 11:00
98부예배(EM) 오후 11:00
99부예배(EM) 오후 11:00
100부예배(EM) 오후 11:00
101부예배(EM) 오후 11:00
102부예배(EM) 오후 11:00
103부예배(EM) 오후 11:00
104부예배(EM) 오후 11:00
105부예배(EM) 오후 11:00
106부예배(EM) 오후 11:00
107부예배(EM) 오후 11:00
108부예배(EM) 오후 11:00
109부예배(EM) 오후 11:00
110부예배(EM) 오후 11:00
111부예배(EM) 오후 11:00
112부예배(EM) 오후 11:00
113부예배(EM) 오후 11:00
114부예배(EM) 오후 11:00
115부예배(EM) 오후 11:00
116부예배(EM) 오후 11:00
117부예배(EM) 오후 11:00
118부예배(EM) 오후 11:00
119부예배(EM) 오후 11:00
120부예배(EM) 오후 11:00
121부예배(EM) 오후 11:00
122부예배(EM) 오후 11:00
123부예배(EM) 오후 11:00
124부예배(EM) 오후 11:00
125부예배(EM) 오후 11:00
126부예배(EM) 오후 11:00
127부예배(EM) 오후 11:00
128부예배(EM) 오후 11:00
129부예배(EM) 오후 11:00
130부예배(EM) 오후 11:00
131부예배(EM) 오후 11:00
132부예배(EM) 오후 11:00
133부예배(EM) 오후 11:00
134부예배(EM) 오후 11:00
135부예배(EM) 오후 11:00
136부예배(EM) 오후 11:00
137부예배(EM) 오후 11:00
138부예배(EM) 오후 11:00
139부예배(EM) 오후 11:00
140부예배(EM) 오후 11:00
141부예배(EM) 오후 11:00
142부예배(EM) 오후 11:00
143부예배(EM) 오후 11:00
144부예배(EM) 오후 11:00
145부예배(EM) 오후 11:00
146부예배(EM) 오후 11:00
147부예배(EM) 오후 11:00
148부예배(EM) 오후 11:00
149부예배(EM) 오후 11:00
150부예배(EM) 오후 11:00
151부예배(EM) 오후 11:00
152부예배(EM) 오후 11:00
153부예배(EM) 오후 11:00
154부예배(EM) 오후 11:00
155부예배(EM) 오후 11:00
156부예배(EM) 오후 11:00
157부예배(EM) 오후 11:00
158부예배(EM) 오후 11:00
159부예배(EM) 오후 11:00
160부예배(EM) 오후 11:00
161부예배(EM) 오후 11:00
162부예배(EM) 오후 11:00
163부예배(EM) 오후 11:00
164부예배(EM) 오후 11:00
165부예배(EM) 오후 11:00
166부예배(EM) 오후 11:00
167부예배(EM) 오후 11:00
168부예배(EM) 오후 11:00
169부예배(EM) 오후 11:00
170부예배(EM) 오후 11:00
171부예배(EM) 오후 11:00
172부예배(EM) 오후 11:00
173부예배(EM) 오후 11:00
174부예배(EM) 오후 11:00
175부예배(EM) 오후 11:00
176부예배(EM) 오후 11:00
177부예배(EM) 오후 11:00
178부예배(EM) 오후 11:00
179부예배(EM) 오후 11:00
180부예배(EM) 오후 11:00
181부예배(EM) 오후 11:00
182부예배(EM) 오후 11:00
183부예배(EM) 오후 11:00
184부예배(EM) 오후 11:00
185부예배(EM) 오후 11:00
186부예배(EM) 오후 11:00
187부예배(EM) 오후 11:00
188부예배(EM) 오후 11:00
189부예배(EM) 오후 11:00
190부예배(EM) 오후 11:00
191부예배(EM) 오후 11:00
192부예배(EM) 오후

이찬수 목사 “내년 말까지 30개 교구, 30개 교회 되게 할 것”

‘1만 성도 파송 운동’과 관련, 분립 교회 목회자 선임 방식 언급

담임 이찬수 목사가 2일 주일예배 설교 도중 ‘1만 성도 파송 운동’과 관련, 분립 교회 목회자 선임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

분당우리교회는 현재 20개 교구를 연말까지 30개 교구로 개편하고, 1년간 과도기 및 준비를 거쳐 내년 말까지 30개 교구를 자연스럽게 30개 교회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분립하는 30개 교회 담임목사들의 경우, 절반인 15개 교회는 기존 부교역자들이 담임을 맡기로 했으며, 나머지 절반인 15개 교회는 외부에서 ‘인격과 영성을 갖춘 교역자’를 추천받아 맡기기로 했다.

이찬수 목사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분노 다스리기(엡 4:31-3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15개 교회를 왜 외부의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 맡기는가”라며 “교회와 교회는

서로 하나되고 협력하는 관계이지 경쟁관계가 아닌 것을 보여 주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심사해서 누가 좋은 대학 나왔고 누가 설교 잘하나 이런 것만 보지 않고, 5주간 걸쳐 세상 말로 ‘경쟁자들’끼리 조를 만들어서 서로 교회에 대해 토론하고 마음의 상황을 끄집어내는 과정을 통해 청빙할 것”이라며 “이런 행동들 속에 나타나는 의지는 ‘가인처럼 가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 피를 나눈 가정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을 놀려야 하고 죽여야 하는 경쟁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찬수 목사.

이대웅 기자

신천지 이만희 교주, 1일 새벽 구속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우려” 수원구치소 수감



지난 3월 기자회견 당시 이만희 씨 모습.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 씨(89)가 8월 1일 새벽 정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달판사는 7월 31일 이만희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명철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나이와 건강 상태에 대해선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혼자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7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1일 오전 1시 20분쯤

구속을 결정했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던 이만희 씨는 그대로 구속됐다.

이만희 씨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 예방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개최했던 혐의도 있다.

신천지 측은 지난 7월 8일 비슷한 혐의로 간부 3명이 구속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월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만희 씨를 불러 조사한 후,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대웅 기자

김동호 목사 “동성애, 주사파 지지하지 않는다” 반박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가 자신은 동성애와 주사파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2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과 방송에서 자신을 동성애 지지자로 보는 것 같아 “동성애에 지지하지 않는다. 동성애는 창조의 원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고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동성애자를 교회 밖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간음한 여인은 예수님도 품으셨잖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저들이 동성애 지지자로 매도하는 저 외에 대부분의 기관과 사람들도 제가 아는 한 대부분 저와 같은 입장과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동성애자를 품어야 한다는 말을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말과 같은 말로 읽고 있다. 알고 그렇게 읽는지 정말 모르고 그렇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상대하지 않는 것은 거기 쓸 시간이 없어서다. 저들의 노이즈 마케팅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라며 “누가 저를 동성애 지지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동성애 지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제가 동성애를 지지해야만 동성애 지지자가 되는 것이

다. 제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설교를 할 때 그 때 저를 비난하고 비판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저는 침묵하고 숨어 있는 사람 아니다. 일 년 내내 날마다 거의 날마다 글 써 올리고 날마다 유튜브에 방송을 올리는 사람”이라며 “그 수 많은 설교와 글 중에 제가 동성애 지지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 제가 주사파 주장하는 것 들으신 적 있으신가? 주사파의 핵심 철학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신앙과 목회의 철학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건 아시지 않으신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저를 판단하시려고 하실 때 남의 말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제 말과 글을 보고 판단하시고 비판하시고 실망하셔도 늦지 않다”며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셔서 맘설이다가 이 글 올린다. 다시 안 올린다. 여러분, 저 바쁘다. 아무리 건드려도 꿈쩍도 안 할 것이다. 그냥 저는 제 길을 갈 것이다. 하나님께 가라 하신 그길 가련다”고 했다.

한편 그는 이 글 서두에 9월 자신이 속한 교단(예장 통합) 총회를 앞두고 M교회 지지 집회에서 “김동호가 물러나야 교단이 산다”는 구호가 제창됐다고 언급했다.

송경호 기자

그는 “저를 판단하시려고 하실 때 남의 말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제 말과 글을 보고 판단하시고 비판하시고 실망하셔도 늦지 않다”며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셔서 맘설이다가 이 글 올린다. 다시 안 올린다. 여러분, 저 바쁘다. 아무리 건드려도 꿈

쩍도 안 할 것이다. 그냥 저는 제 길을 갈 것이다. 하나님께 가라 하신 그길 가련다”고 했다.

한편 그는 이 글 서두에 9월 자신이 속한 교단(예장 통합) 총회를 앞두고 M교회 지지 집회에서 “김동호가 물러나야 교단이 산다”는 구호가 제창됐다고 언급했다.

송경호 기자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가 자신은 동성애와 주사파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2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과 방송에서 자신을 동성애 지지자로 보는 것 같아 “동성애에 지지하지 않는다. 동성애는 창조의 원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고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동성애자를 교회 밖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간음한 여인은 예수님도 품으셨잖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저들이 동성애 지지자로 매도하는 저 외에 대부분의 기관과 사람들도 제가 아는 한 대부분 저와 같은 입장과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동성애자를 품어야 한다는 말을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말과 같은 말로 읽고 있다. 알고 그렇게 읽는지 정말 모르고 그렇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상대하지 않는 것은 거기 쓸 시간이 없어서다. 저들의 노이즈 마케팅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라며 “누가 저를 동성애 지지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동성애 지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제가 동성애를 지지해야만 동성애 지지자가 되는 것이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가 자신은 동성애와 주사파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2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과 방송에서 자신을 동성애 지지자로 보는 것 같아 “동성애에 지지하지 않는다. 동성애는 창조의 원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고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동성애자를 교회 밖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간음한 여인은 예수님도 품으셨잖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저들이 동성애 지지자로 매도하는 저 외에 대부분의 기관과 사람들도 제가 아는 한 대부분 저와 같은 입장과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동성애자를 품어야 한다는 말을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말과 같은 말로 읽고 있다. 알고 그렇게 읽는지 정말 모르고 그렇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상대하지 않는 것은 거기 쓸 시간이 없어서다. 저들의 노이즈 마케팅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라며 “누가 저를 동성애 지지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동성애 지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제가 동성애를 지지해야만 동성애 지지자가 되는 것이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가 자신은 동성애와 주사파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2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과 방송에서 자신을 동성애 지지자로 보는 것 같아 “동성애에 지지하지 않는다. 동성애는 창조의 원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고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동성애자를 교회 밖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간음한 여인은 예수님도 품으셨잖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저들이 동성애 지지자로 매도하는 저 외에 대부분의 기관과 사람들도 제가 아는 한 대부분 저와 같은 입장과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동성애자를 품어야 한다는 말을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말과 같은 말로 읽고 있다. 알고 그렇게 읽는지 정말 모르고 그렇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상대하지 않는 것은 거기 쓸 시간이 없어서다. 저들의 노이즈 마케팅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라며 “누가 저를 동성애 지지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동성애 지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제가 동성애를 지지해야만 동성애 지지자가 되는 것이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가 자신은 동성애와 주사파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2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과 방송에서 자신을 동성애 지지자로 보는 것 같아 “동성애에 지지하지 않는다. 동성애는 창조의 원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고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동성애자를 교회 밖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간음한 여인은 예수님도 품으셨잖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저들이 동성애 지지자로 매도하는 저 외에 대부분의 기관과 사람들도 제가 아는 한 대부분 저와 같은 입장과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동성애자를 품어야 한다는 말을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말과 같은 말로 읽고 있다. 알고 그렇게 읽는지 정말 모르고 그렇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상대하지 않는 것은 거기 쓸 시간이 없어서다. 저들의 노이즈 마케팅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라며 “누가 저를 동성애 지지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동성애 지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제가 동성애를 지지해야만 동성애 지지자가 되는 것이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가 자신은 동성애와 주사파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2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과 방송에서 자신을 동성애 지지자로 보는 것 같아 “동성애에 지지하지 않는다. 동성애는 창조의 원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고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동성애자를 교회 밖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간음한 여인은 예수님도 품으셨잖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저들이 동성애 지지자로 매도하는 저 외에 대부분의 기관과 사람들도 제가 아는 한 대부분 저와 같은 입장과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동성애자를 품어야 한다는 말을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말과 같은 말로 읽고 있다. 알고 그렇게 읽는지 정말 모르고 그렇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상대하지 않는 것은 거기 쓸 시간이 없어서다. 저들의 노이즈 마케팅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라며 “누가 저를 동성애 지지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동성애 지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제가 동성애를 지지해야만 동성애 지지자가 되는 것이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가 자신은 동성애와 주사파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2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과 방송에서 자신을 동성애 지지자로 보는 것 같아 “동성애에 지지하지 않는다. 동성애는 창조의 원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고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동성애자를 교회 밖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간음한 여인은 예수님도 품으셨잖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저들이 동성애 지지자로 매도하는 저 외에 대부분의 기관과 사람들도 제가 아는 한 대부분 저와 같은 입장과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동성애자를 품어야 한다는 말을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말과 같은 말로 읽고 있다. 알고 그렇게 읽는지 정말 모르고 그렇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상대하지 않는 것은 거기 쓸 시간이 없어서다. 저들의 노이즈 마케팅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라며 “누가 저를 동성애 지지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동성애 지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제가 동성애를 지지해야만 동성애 지지자가 되는 것이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가 자신은 동성애와 주사파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2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과 방송에서 자신을 동성애 지지자로 보는 것 같아 “동성애에 지지하지 않는다. 동성애는 창조의 원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고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동성애자를 교회 밖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간음한 여인은 예수님도 품으셨잖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저들이 동성애 지지자로 매도하는 저 외에 대부분의 기관과 사람들도 제가 아는 한 대부분 저와 같은 입장과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동성애자를 품어야 한다는 말을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말과 같은 말로 읽고 있다. 알고 그렇게 읽는지 정말 모르고 그렇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상대하지 않는 것은 거기 쓸 시간이 없어서다. 저들의 노이즈 마케팅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라며 “누가 저를 동성애 지지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동성애 지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제가 동성애를 지지해야만 동성애 지지자가 되는 것이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가 자신은 동성애와 주사파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2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과 방송에서 자신을 동성애 지지자로 보는 것 같아 “동성애에 지지하지 않는다. 동성애는 창조의 원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고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동성애자를 교회 밖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간음한 여인은 예수님도 품으셨잖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저들이 동성애 지지자로 매도하는 저 외에 대부분의 기관과 사람들도 제가 아는 한 대부분 저와 같은 입장과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동성애자를 품어야 한다는 말을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말과 같은 말로 읽고 있다. 알고 그렇게 읽는지 정말 모르고 그렇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상대하지 않는 것은 거기 쓸 시간이 없어서다. 저들의 노이즈 마케팅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라며 “누가 저를 동성애 지지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동성애 지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제가 동성애를 지지해야만 동성애 지지자가 되는 것이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가 자신은 동성애와 주사파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0 여름학기 강의시간표

| 요일 | 시간 | 과목 | 교수 |
|-----|----------------|------------|------------------|
| Mon | PM 7:00 - 9:00 | 설교학 | Dr. Jong Kim |
| Tue | PM 7:00 - 9:00 | 로마서 | Dr. James Lee |
| Wed | PM 8:30- 10:30 | 사무엘상,하 | Dr. Timothy Song |
| Thu | PM 7:00 - 9:00 | 현대신학 II | Dr. David Lee |
| Fri | PM 8:30- 10:30 | 현대교회사 | Dr. Daniel Min |
| Sat | PM 7:00 - 9:00 | 청교도 신학과 신앙 | Dr. Elijah Kim |
| Sun | PM 7:00 - 9:00 | 조직신학 I | Dr. Elijah Kim |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 128 학점
 -목회학석사과정 (M.Div) | 96 학점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학위과정)*

개강일자 : 2020년 6월 22일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회복력의 세 가지 비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우리는 어느 때보다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복이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회복력의 세 가지 비밀을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6-18상).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속에 회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비밀은 선택에 있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살전 5:16)고 권면합니다. 항상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선택은 가능합니다. 행복과 기쁨은 다릅니다. 행복은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반면에 기쁨은 환경을 조절합니다.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빌 4:4 상)고 말합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때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환경은 보통 사람들이 볼 때 기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가 항상 기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을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긴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고난 속에 감추인 보물을 볼 수 있는 통찰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고통을 삶의 한 부분으로 여깁니다.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삶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고통을 인정하고 고통을 극복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런 깊이에 환난 중에도 기쁠 것입니다.(롬 5:3; 약 1:2-4).

고통 중에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따뜻한 미소를 짓도록 하십시오. 얼굴을 찡그린다고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미소로 얼굴을 펴도록 하십시오. 얼굴을 펴게 되면 마음의 주름도 펴집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말처럼 웃

을 일이 있어 웃는 것이 아닙니다. 웃다보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미소를 짓는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자신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힘들어 하는 자신을 꼭 껴안아 주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자신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법을 터득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돌보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호흡은 생명의 기운입니다. 기도는 호흡처럼 소중합니다. 그런 깊이에 호흡처럼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절은 죽음입니다. 반면에 연결은 생명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충만한 생명과 능력을 공급 받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

는 도관(導管)과 같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초점 맞추기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 자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소망을 품게 됩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흥자성은 “오래 엎드린 새가 높게 난다”고 말했습니다.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높이 비상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셋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범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일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범사 감사란 세상에서 말하는 나쁜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런 일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사람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범사 감사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충만한 삶의 비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롬 8:28).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틴 세리그만은 감사를 통해 많은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찾아온 환자들에게 6개월 동안 하루에 3가지씩 감사 내용을 노트에 기록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감사 내용을 기록할 때는 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지를 꼭 쓰게 만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하루에 3가지씩 감사 내용을 기록한 사람들은 놀랍게 회복되었습니다. 감사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회복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세 가지 비밀을 실천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마당 예배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코로나 때문에 유익한 것을 찾는다면, 매일 정기적인 시간에 산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를 매일 걸으면서도 조경을 얼마나 잘해 놓았는지, 관리비를 내면서도 어디에 돈이 쓰이는지 몰랐었는데, 이제는 예쁘게 꾸며놓은 공원에서 잘 가꿔진 나무들과 싱그럽게 자라 향긋한 내용을 전하는 꽃들을 보며 상쾌하게 산보를 다닙니다. 미처 다듬지 못한 관목들을 보면서, 어떤 나무들은 비정상적으로 크고 어떤 나무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나무를 심었을 텐데, 왜 나무들이 다 다를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나무보다는 나무가 심긴, 보이지 않는 땅 속 환경 때문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무의 차이는 땅의 차이’라는 생각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꾸 확인됩니다. 설교자는 똑같이 전했고 듣는 자도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왜 열매가 다를까요 항상 궁금했습니다. 설교자의 삶이 듣는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맺히는 열매의 차이는 나무가 심긴 밭의 종류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도 없고, 사방이 벽으로 둘러쳐진 집 안에서 갑갑하게 있다 보면 하늘이 탁 트이고, 지평선도 보이는 넓은 마당으로 뛰어 나가고 싶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반 강제적으로 갇혀 지내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지내던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남이 ‘맛남’이듯, 서로를 통해 나누는 기쁨의 맛이 바로 인생의 맛이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그리움은 예배의 그리움이었고, 이 그리움은 말씀을 현장에서 듣는 은혜에의 그리움이었습니다. 이 그리움의 차이는 어쩌면 말씀이 떨어지는 밭의 차이도 밟아준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그리운 부모님,

일가친척들… 비록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오래 동안 만나지 못해도, 우리는 언젠가 만날 날을 기약하며 서로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지금 여기, 지척에 있는 성도들끼리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기에 우정의 가치를 한층 더하며, 늘 험하고 그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제한된 솟자로 모였던 현장 예배가 다시 닫히던 순간, 노아의 방주 닫히는 소리가 이만큼 커울까 싶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풍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한 주 만에 실외 공간인 교회 마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재개하면서, 닫힌 마음의 창을 열고 넓은 바닷가로 나가는 심정으로 예배의 문을 엽니다. 본당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코 앞이지만, 바로 그 앞에서 모여 해 저무는 시원한 여름에 마음 시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위와 바이러스를 몰아내고 우리의 기슴마저 탁 트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톰 존스의 팝송 가사처럼, 옛 집 고향의 정겨운 부모와 친구들이 그립듯, It's good to touch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파란 잔디가 펼쳐져 있는 고향의 우리 집 마당을 밟고 뛰는 심정으로 교회 앞 마당으로 뛰어나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기고

온라인 예배 이대로 좋은가



임지석 목사
나성세계로교회 담임

게 세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온라인 예배의 필요성

요즘 교회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추세를 보면서 우선은 신체적인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기 위해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고 있다. 나이가 들고 지병을 앓고 있거나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예배당을 찾아가기가 힘들다는 이유를 대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라 할 수 있다. 특별히 오프라인 예배를 벗어나 예배의 끈을 놓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아가 이런 저런 사정으로 마땅한 예배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교회에서도 그 대안으로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고 있는 형편이다.

테레사 베르거는 저서 Worship: Liturgical Practices in Digital Worlds에서 온라인 예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온라인 예배가 ‘사이버’라는 말이 주는 어감처럼 가장 또는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 비상상태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 ‘실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온라인 예배의 장점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이버 공간에도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으로서

예배에의 경건성을 떠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이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디지털을 이용한 예배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첫째, 예배에 보다 진보된 기술과 과학을 접목시킴으로서 시청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갈수록 시간을 다투는 오늘날의 추세를 볼 때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묶이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휴대하거나 이동이 가능한 기구들을 통해서 제한되지 않은 공간을 향해서 얼마든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전파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온라인 예배의 문제점

온라인 예배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은 전통적인 예배에서 경험했던 성도들의 영적 교류가 과연 가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아래로 교회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한 코이노니아의 완성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말이다. 예배에는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되 찬양과 기도와 헌금생활을 통한 헌신과 열정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온라인 예배가 예배자의 참여를 통한 능동적인 예배보다는 수동적인 예배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는 것이다.

가정에 모여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의 일상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온라인 예배가 ‘드리는 예배’보다는 ‘보는 예배’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온라인을 통한 목사의 설교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시청각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일에 국한된 지극히 수동적인 예배자의 위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다.

예배에는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정해진 날 집례자의 인도를 따라서 회중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접하는 온라인 예배가 이러한 예배의 속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기 어렵다. 실제로 예배는 참여자인 회중과 예배의 핵심인 말씀과 성찬의 집례자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데 과연 사이버 공간에서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예배에의 새로운 페라다임

우리의 드릴 예배는 예배 자체보다도 어떠한 자세로 드리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교회가 취한 온라인 예배가 현실과 타협하는 인본주의의 예배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환경일수록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자의 자세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도 하루에 세 번씩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대로 하루 세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거점 교회 (Point Church): 다니엘은 분명 바람직한 교회의 패러다임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가 머무르는 집이 거점 교회로서 바로 예배처소였던 것이다. 예배 장소는 가정은 물론 우리가 머무르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그 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각 사람은 항상 제사장의 신분으로 거점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지하 교회 (Underground Church):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를 통한 어려움은 성도에게 찾아올 환난의 시대의 시작이다. 이에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 찾아올 환난을 준비해야 하는데 카타콤의 지하로 숨어들어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순교정신으로 예배에 임해야 하는 것이다. 언제 인생의 종말에 이를지 모르기 때문에 각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성으로 예배드릴 지하교회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훼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제단/직접제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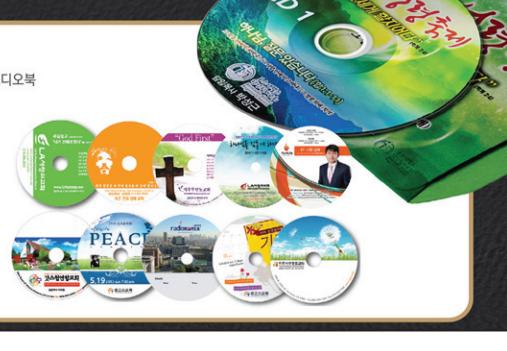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 앤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령,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24시간 서고운행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옵니다.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1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업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국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프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판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양자 깔창

양자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활,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들게 한다.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온 : 항균, 항취 효과
-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EM 유동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Tel. (213)703-0240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학개 선지를 통한 말씀과 성령운동

학개 1:1-15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 다리오 왕 이년 유월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단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3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4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관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나 5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찌니라 6 너희가 많이 뿐릴찌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찌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찌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중략)…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9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10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12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단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13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14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단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15 때는 다리오 왕 이년 유월 이십사일이었더라

1.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는 이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끌보다 더 달게 받아 믿음으로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태평성대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도 많았습니다. 그 때에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기대하고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께 배은망덕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가만히 두지지 않으시고 주변 국가들을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삼으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정없이 두들겨 맞고 죽임 당하고 포로로

잡혀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비극도 여러 차례 되풀이 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B.C 605년에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70년간 붙여서 매를 맞고 멸시천대와 온갖 구박과 행패를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때에 느부갓네살은 성전에 세워진 두 기둥인 야금과 보아스의 순금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와 하나님 섭기는 일에 사용되는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등 6,000여 개를 모두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 70년 동안 종노릇하게 하십니다. 당시의 왕인 시드기야는 자신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하도 배은망덕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쳐도 이성을 잃고 악령에게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 그들이 섭기는 미신우상을 음란하게 섭겼습니다. 그런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히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별을 내리시고, 매를 때리시면 무릎 끊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빌며 매를 맞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신은 매를 맞지 않겠다고 도망을 가거나, 변명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강퍅한 마음은 도리어 더 참혹한 형벌을 재촉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성전 건축의 지연으로 인한 하나님의 책망

이제 70년 세월을 비참하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방되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포로귀환을 시키는 바사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금, 은, 보석 등을 함께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성전 지을 돈을 미리 챙겨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돈으로 자기 집 짓기에 바빴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으로 경쟁하듯이 허욕을 채웠습니다. 그 때 제사장이나 스룹바벨 종독이 우리가 다시 성전 재건하자고 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욕심을 아직 덜 채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왕을 통하여 거둬 모아서 챙겨 가게 하신 돈을 가로채서 성전 짓는 일은 깊이 잊어버리고 자기네 집 짓는 일에 바빴던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관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나”라

고 책망하십니다. 관백한 집이란 것은, 집을 아주 거창하게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찌니라” 소위를 살펴보라는 것은, 자기가 행한 일을 점검해 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촉구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씨를 많이 뿐려도 수입이 적었고, 많이 먹고 마셔도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대에 구멍을 뚫어놓아 삶을 받아 넣어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물질을 많이 모아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전대에 구멍을 막아주지 않으면 더 많은 재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수입보다 나가는 지출이 더 많기에 항상 그의 삶의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전대의 구멍을 막아주시면 수입이 적을지라도 빠져 나가는 지출이 없기에 그는 점점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유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3. 성전건축을 명하신 하나님

성전 건축을 지연하는 여러 핑계 중에 하나님은 약 60여 년 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처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00살쯤 되는 늙은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것을 재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본 적 없던 자손들은 성전을 재건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이 만나는 장소이니 금, 은

으로 화려하게 꾸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목조건물로 짓더라도 상관없으니 우선 성전재건을 시작하라는 명령입니다. 성전재건하기 위하여 나무를 베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자신의 관심과 기대와 믿음과 정성을 오직 하나님께만 기울이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금으로 멋있게 짓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록 초라하게 나무를 베어다가 목조건물로 성전을 건축할지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성은교회로 불러주셔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는지,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계십니다. 만일 후자에 해당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니 실패는 불을 보듯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실패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서둘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사랑의 채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목적에 어긋나게 쓰는 것은 안 됩니다. 건강회복, 물질회복, 명예회복, 인간관계회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면 내 건강도 물질도 인간관계도 다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더 크게 도우셔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 한국 선교 설교 | | | |
|--|--|--------------|-------------------------------------|
| TV 한국 방송 설교 | | 한국 신문 설교 | |
| CBS TV | 목요일 오후 2시 | 경북 기독 신문 | 3면 설교 |
| CTS TV | 금요일 오전 6시 | 기도원 연합신문 | 3면 설교 |
| 해외 선교 설교 | | | |
| TV 미국 방송 설교 | |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 |
| COX TV | 화요일 오후 6시 | 목요일 낮 12시 | AM1540 라디오 코리아 |
| 워싱턴DC. | 토요일 오전 7시 | 주일 오후 10시30분 |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
| CTS TV | 수요일 서부오후4시30분/동부오후7시30분 토요일 서부오후6시/동부오후9시 | |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
| 미국 신문 설교 | |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 |
| 기독일보 | 설교 | 오프라인 칼럼 설교 | AM1310 기쁜소리방송 |
| | 인터넷신문 설교 | 온라인 칼럼 설교 |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
| 지구촌 어디서든 YOU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 | | |

提 供 國 際 성 은 복 음 선 교 회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감상선

당뇨

“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끙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슥거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갑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끽물, 고막염,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스타구니)
- 치아 미백(화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을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오름
- 옆구리 통증(협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는 증상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선한의원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 ✓ 손 가락
 - ✓ 발 가락
 -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배빼는 숙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빼지는 약
\$50
한달분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도모아)



안녕하세요. 2020년 센서스 인구 조사원입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안전하고,
간단하게 응답하도록 돕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저는 올해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지역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후,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을 돋기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10년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를 통해 각 지역사회
요구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응답은 중요합니다.
인터넷, 전화, 우편 또는 센서스 인구 조사원을 통해 응답하세요.

2020CENSUS.GOV/ko
또는 전화 844-392-2020으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

United States®
Census
2020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 언택트 시대, 독서로 승부하라

세상보다 앞서려면… ‘독서팡’에서 독서팡으로



독서팡에서 독서팡으로
김도인
목양 | 316쪽

성경 읽기와 함께 책을 읽으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을 독서 ‘팡’에서 독서 ‘꽝’으로 바꾸고 싶은 열정이 담겨 있다.

‘본질로 돌아가라’
‘아드 폰테스(Ad Fontes)’
란 라틴어가 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혹은 “근원으로 돌아가라”라는 뜻이다.

배움에 대한 본질은 스크린이 아니라 독서에서 찾아야 한다.

‘책 속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책은 답을 하나씩 갖고 있다.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독서가 삶의 일부분이어야 한다.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막힌 언택트(un-tact) 시대가 되었다.

언택트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온택트(on-tact), 즉 온라인 대면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아니, 온택트는 이제 디지털 트랜드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모두의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다. 되돌릴 방법이 없다.

아무리 언택트 시대에서 온택트 시대로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실력이다. 본질을 깨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다. 이것을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독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스마트폰 시대, 영상 시대로 인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튜브에 열광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다. 이럴 때 일수록 독서를 해야 한다.

독서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고의 확장을 위해서다. 독서를 통해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확장이다. 사고가 확장이 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긴다. 통찰력이 생긴다.

이렇게 중요한 독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독서를 하지 않고 있다. 독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김도인 목사는 <독서팡에서 독서팡으로>를 썼다.

저자 김도인 목사는 50세에 접어들면서 독서를 하기 시작했다. 10년 동안 5,000권의 책을 읽었다. 독서를 하면 할수록, 독서의 중요함을 절감했다.

독서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아드 폰테스(Ad Fontes, 기본으로 돌아가라 혹은 근원으로 돌아가라라는 뜻)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성경 읽기로 돌아가야 한다. 둘째, 책 읽기로 돌아가야 한다. 저자는 ‘아드 폰테스’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인이 책으로 돌아갈 때, 스크린으로 물든 사람을 하나님으로 몰들일 수 있다. ‘본질’이 뜻하는 바는 ‘변하지 않는 가치’다. 독서의 본질은 인간의 가치 회복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치 쌓기’보다는 ‘스펙 쌓기’를 추구한다. 본질이 아니라 겉만 더욱 포장하고 꾸미기를 원한다. 계속 스펙을 추구한다면 남는 것은 덩어리만 큰, 빈 수

레뿐이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아드 폰테스’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생에서 기본인 독서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은 독서팡이 아니라 독서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나님은 독서팡을 원하지 않고 독서팡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1장: 독서, 교회 회복의 답이다

한국교회는 점점 주락하고 있다. 주락한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독서다. 세상은 지식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 교회도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교회와 신앙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독서가 뒷받침돼야 한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도 각자가 회복되어야 한다. 성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독서가 회복돼야 한다.

2장: 독서가 신앙생활이다

‘독서가 신앙생활이다’라는 말에 의문이 들 수 있다. 신앙생활은 기도와 전도, 봉사가 아닌가? 신앙의 균형을 위해 한 가지 더 보태져야 한다. 바로 독서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통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나는 말씀묵상이다. 또 다른 하나는 독서다. 결국, 말씀 독서와 책 독서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독서팡’에서 벗어나 ‘독서팡’이 돼야 한다.

3장: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꿈꾸라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꿈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독서다.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지혜와 지식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세상 지식만 있어서도 안 되고, 하늘의 지혜만 고집해서도 안 된다.

세상 지식만으로 채워지면 인본주의자가 된다. 하나님의 지식만으로 채워지면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친대가 된다. 그리스도인 독서를 통해 둘의 균형을 갖춰야 한다. 그럴 때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다.

4장: 그리스도인, 독서를 할 이유가 분명하다

그리스도인이 독서할 이유는 딱 하나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독서를 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읽은 만큼 하나님을 보게 한다. 그것은 독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독서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됐다. 사랑도 알아야 더 잘

할 수 있음을 안다. 그러므로 독서를 해야 한다. 독서를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넘치게 된다.

5장: 책이 당신을 ‘맛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교보문고의 표어가 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리스도인은 책에 의해 살아가고 만들어진다. 책을 읽는 동안에는 힘들다. 힘든 과정을 거치면 기쁨과 환희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꿈을꾼다.

그리스도인은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읽는 것이 아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이 읽는다. 하나님을 위한 멋진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읽는다. 한 가한 사람은 책을 읽지 않는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듯 독서를 한다.

6장: 그리스도인이여! 책으로 세상을 점령하라

세상이 성경에 의해 점령되었듯, 그리스도인은 책으로 세상을 점령해야 한다. 세상은 지식으로 구성돼 있다. 지식으로 구성된 세상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 거기다 영성까지 겸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 그럴 때 바울과 같이 이방인을 굴복시킬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 수 있다.

7장: 자기 관리가 독서 관리다

독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자기관리 여부에 달려 있다. 바쁘다고 독서를 할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독서가 주는 힘과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 독서를 하게 된다.

독서는 바빠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 안 하는 것이다. 3년 동안 1,000권 독서를 하라. 3년 1,000권 독서는 자기관리를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이 3년에 1,000권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자기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광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과 영광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책과 사람의 책으로 독서를 한다.

책 1권을 읽어도, 1권의 좋은 책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다. 저자는 수많은 책들을 읽은 뒤, 그 중 좋은 책들을 부록에서 소개하고 있다. 좋은 책을 소개받는 것만으로 이 책의 값어치는 엄청나다.

정보는 사람의 정신 키워주지 못해 독서 통해 신앙의 진리 성장시키길 성도들 독서광 돼야 교회 다시 회복

101세 노학자인 김형석 교수는 <삶의 한가운데 영원의 길을 찾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

“다른 건 모르지만 독서만큼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대인들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만 가지고 산다. 정보는 필요하면 보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을, 즉 정신을 키워주지 못한다. 반면 독서는 인생의 진리를 키워준다. 그러니 독서를 통해 신앙의 진리를 성장시켜 갔으면 좋겠다.”

100년을 넘게 신앙인으로 지식인으로 살아온 노학자가 그리스도인에게 당부하는 한 가지는 독서하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셨다.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않았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세상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서팡에서 독서광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재영 목사
대구 아름다운교회 담임

출처: 아트설교연구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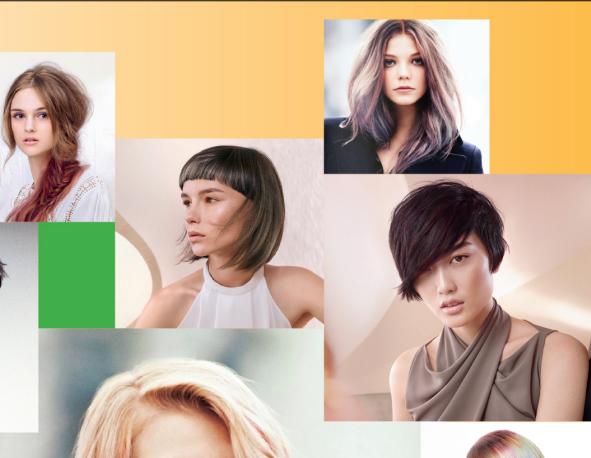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 한함.

* 헤어 컬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성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여성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 한함.

* 헤어 컬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マイスティリスト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 컬라
\$40 up
레귤러

\$20 up
레귤러

매직 스트레이트
\$120 up
레귤러

* 단, 컬라만 하시면 \$40 up

프로페셔널 웨ла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라는 마이스티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웨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맛집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앞서가는 맛집이들이 찾는 곳



- 1) Covid-19로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는데
애가 집중도 못하는거 같고, 관리가 잘 될까요?
- 2) 아이가 고등학생이라 중요한 시기인데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예요..

**100% UC대학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3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사립학교



“이래서~믿을수있구나!”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를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 (타사립학교 대비)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 (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
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8월 10일
개 학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213.487.5437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Est.1999

e-nca.org